

인간의 본질적 욕구의 관점에서 본 의자의 상징성에 관한 연구

A Study on Symbolism of Chairs in the Viewpoint of Human Essential Desires

민찬홍^{*} / Min, Chan-Hong
윤 영^{**} / Yoon, Young

Abstract

Chair is one of objects which are closely connected with human body, and is a symbol which represents human essence and culture. Symbolism embodies the meaning of expression through transferring the immaterial structure to tangible form.

Therefore chair embodies the essential internal desires of human by means of its symbolic representation. In order to understand the essential human desires included in the symbolism of chair, it is necessary to consider these desires with respect to cultural and historical context. In this study, four essential internal desires of human are investigated through the symbolic representation of chair, that is, the desires on human psychological comfort, authority, freedom, and eroticism.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mphasize the necessity of the design approach based on the understanding of essential internal desires of human which is pursued from the object by user.

키워드 : 인간의 본질적 욕구, 의자, 상징성

1. 서론

1.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현재 우리가 활동하고 있는 공간 어디에서나 발견할 수 있는 물건중의 하나이며 인간의 신체와 가장 가깝게 접촉하고 있는 기구중의 하나인 의자는 인류의 본질과 인류가 살아온 문화를 고스란히 담고 있는 상징물이다. 이렇게 인류의 역사가 시작된 이래 항상 인간과 같이 동거동락 해온 의자에 대해 인간의 역사와 문화 그리고 인간의 본질적 관점에서 그 특성을 고찰하는 것은 의자의 양식에 대한 역사 또는 기술 발달에 따른 생산방식이나 재료의 변화를 논하는 표피적인 면보다 인간과 의자의 근본적인 관계를 정립하고 인간이 전정으로 의자에게 요구하는 것에 대한 기본적인 인식의 장을 열 수 있다.

지금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모든 인공물들은 인간이 원하는 욕구들을 충족시키기 위해 공예가, 엔지니어 또는 디자이너에 의해 형상화되어 다양한 외형과 양상으로 표출되고 있다. 오랜 동안 인류와

같이 해 온 의자는 그 어떤 기구보다 인간의 기본적인 욕구와 본질을 광범위하고 심층적으로 형상화하고 있다고 해도 그리 과장된 표현이 아니다. 의자는 우선 인간의 육체를 가장 긴 시간동안 떠받쳐 편안한 휴식을 가져다 준다. 그리고 아름다운 형태로 우리의 주거공간이 미적인 풍요로움으로 가득 차게 하기도 한다. 이처럼 의자는 생리적인 면을 고려하여 사용자의 물리적인 욕구를 채워주거나 객관적 또는 주관적인 미적 욕구를 충족시키는 심미적인 기능들이 있다. 그러나 무엇보다 인간의 욕구와 내적 본질을 상징화 시키는 기능의 발휘는 지금까지 인류의 역사를 통해 의자만큼 시공간을 초월해서 변함없이 수행하고 있는 물건은 드물다. 물론 심미적인 기능은 다른 사물에서와 마찬가지로 주관적인 가치와 개인의 내적 심리상태에 따라 평가되어져야 하므로 상징성과도 밀접하게 관련된다. 그러나 고대 국가의 발달 과정에서 보여지는 절대 권력을 상징하는 의자들은 기능적 또는 심미적 기능을 발휘하기 보다 신분에 대한 상징을 위해 기능되어졌음을 기록을 통해 알 수 있다. 그러므로 인류의 역사와 함께 한 의자의 상징적 형상화의 과정을 인간의 근원적인 내적, 본질적 욕구에서 분석하는 것은 의자 뿐만아니라, 인간을 위한 물건의 디자인을 위해 가장 진실되고 근원적인 접근 방법의 시작이다. 왜냐하면 인간이 물건을 소유하는 상징적 이유는 너무나 다양하고 복잡한 양상으로 나타나며 또한 물리적인 논리로는 표현될 수 없지만 인

* 이사, 동덕여자대학교 산업디자인과 부교수

** 정회원, 동덕여자대학교 산업디자인과 강사

간의 생과 삶을 들여다보면 인종적, 지역적 그리고 민족적인 차이를 초월하여 보편적인 몇 가지 인간의 근원적인 내적 욕구로 구분지워 질 수가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보편적이고 근본적인 인간의 생과 삶의 가치관 등이 의자를 통해 어떻게 상징적으로 표현 되는지에 대한 고찰은 의자를 통해 우리의 진실된 모습을 성찰하는 것이기도 하다. 가장 흔하게 생각되는 공기와 물에서 어느 순간 형용할 수 없는 감각과 생명력 그리고 감사함을 느끼듯 우리 생활 가장 가까이에 있는 의자의 상징적 조형 언어를 통해 우리가 진정으로 원했고 원하고 있는 삶의 가치와 철학을 느끼고 이해 할 수 있는 것이다.

이번 연구는 인류의 역사와 인간의 삶 가운데 가장 근본적이고 보편적이며 중요한 내적 욕구들이 의자를 통해 어떻게 상징적으로 형상화 되는지를 분석 고찰하였다. 이를 통해 의자가 가구라는 협의의 개념을 너머 인간을 위해 존재하는 물건들을 만드는 디자이너에게 인간의 본질적인 내적 감성을 충족시키기 위한 디자인적 접근의 필요성을 제시하는데 목적을 두었다. 즉 의자나 책상을 디자인하는 것은 가구디자인 또는 가구 공예가의 기술적인 작업이라기보다는 인간의 삶을 디자인 하는 것 이라는 사명의식에서 출발해야 한다는 인식의 전환을 요구하기 위함이다.

1.2 연구의 범위 및 방법

모든 사물과 생명체의 본질을 고찰하는 것은 항상 학문의 근본인 철학과 인문학적 정보를 요구한다. 그러므로 의자라는 우리 생활에서 흔하게 마주치는 평범한 기구와 인간의 본질을 논한다는 것이 형 이상학적인 듯 하지만 사물의 근본적 개념의 이해로부터 시작하는 것이라는 가장 확실한 디자인 방법으로 안내하는 기본이 될 수 있다. 본 연구는 문현적 고찰과 사례 제시를 위한 사례 분석 연구로 구분 된다. 우선 의자의 정확한 개념을 고찰하고, 상징성의 의미를 문현을 통해 명확히 한다. 과거와 현재까지의 의자의 역사속에 나타나는 인간의 보편적이고 본질적인 내적 욕구를 네가지로 구분 그 의미를 고찰하고 이를 상징적으로 형상화한 의자 사례를 조형적으로 분석 제시한다. 이를 통해 의자의 상징적 기능이 인간의 본질적이고 내적인 욕구와 얼마나 밀접히 관계되는가와 그 중요성을 증명한다. 결론에서는 인간이 진정으로 원하는 물건을 디자인하기 위해 본론에서 고찰 된 내용을 통해 인간의 본질적인 내적 감성의 이해로부터의 디자인 접근의 필요성과 방향을 제시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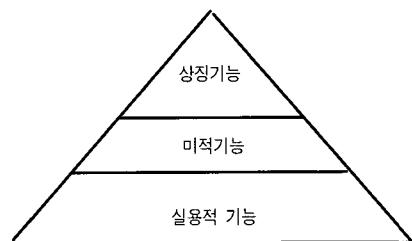
2. 의자와 상징성의 개념

2.1 의자

의자는 가구의 하나로서 자체가 기능을 지닌 도구이다. 의자는 사람이 앓기 위한 도구이지만 의자의 기원이 권좌에서 유래한 것에서도 알 수 있듯이 편하게 앓기 위한 것 만으로 그 기능을 다하는 것은 아니다. 의자의 기능으로는 첫째로 치수와 구조가 인체공학에

적절하여 앓기 편한 것, 쓰기 편한 것 등 실체 이용을 위한 기능을 충족시키는 실용적 기능을 위한 도구이다. 둘째 아름다운 것, 새롭고, 신선한 것등 의자와 사용자 간의 인지 과정에서 체험되는 감각적이고 심리적인 측면을 충족시키는 심미적 기능이 있다. 마지막으로 본 논문에서 고찰하려고 하는 종교, 문화, 신분, 심리 등 인간의 내적 욕구 충족을 위한 상징적인 기능을 지니고 있다.

베른트 뢰바흐(Bernd Loebach)에 의하면 사물의 욕구충족 기능 가운데 상징적 기능은 실용적 기능이나 미적 기능의 윗 단계이지만 기능은 제작 목적이나 의도에 따라서 결정된다¹⁾고 한다. 즉 단계는 절대성을 지니지 않기 때문에 경우에 따라서는 미적 기능 또는 상징적 기능이 우선되는 의자가 제작 된다. 혹은 실용적 기능을 완전히 무시하고 미적 기능이나 상징적 기능 하나만을 만족 시키는 경우도 의자에 있어 가능 한 것이다. 특히 본 논문에서 세가지의 기능중 인간의 내적 욕구가 연상되거나 상징화되어 표현된 의자에 있어 인간의 본질적 욕구의 의미가 무엇인가에 초점을 맞추어 분석한다.



<그림 1> 베른하르트 뢰바흐의 욕구 충족 3단계

옛 프랑스의 쉐르(Chaire)에서 유래된 1인용의 등받이 걸상의 자²⁾와 고대 이집트와 메소포타미아 그리고 동양권에서도 사용된 왕좌와 권위를 상징하는 의자가 있는가 하면 그리스에서 시작된 평범한 의자에 이르기 까지 의자는 단기적으로 존재했던 도구가 아니며 기원전5000년전부터 지금까지 그 존재의 명맥을 유지해 온 도구이다. 의자의 디자인은 가구 디자이너 뿐 아니라 건축가, 공예가, 화가 등 뿐 만아니라, 일반인의 작업도 병행 되어져 왔으므로 예술 양식적 측면보다 보편적인 성격을 지니고 있다. 그리고 의자는 다른 가구와는 달리 사용자의 이동시에 함께 다닌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으므로 의자가 사용자 나름의 기호와 생활 철학, 취향에 맞게 선택되어지는 속성으로 인해 인간의 여러가지 내적 욕구들을 상징적으로 대변한다.

의자는 긴의자, 등받이가 없는 의자등 형태에 따른 분류, 또는 식 사용의자와 안락의자등의 용도상으로 분류 될 수도 있다. 이외에 구조, 재료, 가공방법에 따른 분류도 가능하다. 그러나 본 논문에서는 이러한 의자의 분류에 초점을 맞추기 보다 인간이 앓는(sitting)다는 행위를 할 수 있는 모든 의자의 상징적 의미와의 인간 내적 욕구를 고찰하기로 한다. 의자는 시대의 산물로서 유기적 환경계속에서 모

1)Bernd loebach, 신수길역, Industrial Design, p.54

2)민찬홍 외 3인, 실내디자인 용어사전, 도서출판 디자인하우스, 1995, p.283

는 사회, 문화, 경제적 측면의 영향으로부터 발생하고 변천한 동시에 일반적이고 개별적인 특성을 가지므로 의자를 통해 인간의 보편적이며 본질적인 내적 욕구를 구분하고 탐구하는데 적절하다.

2.2 상징성

상징의 사전적 의미는 어떤 생각이나 개념을 그것을 연상시키는 구체적인 사물이나 말로 바꾸어 나타내는 일 또는 그 구체적인 사물이나 말이라고 표현된다. 그리고 상징성은 상징하는 성질을 의미하는 것이다.³⁾ 그러므로 제품이나 가구 디자인에서의 상징성이란 시각을 통해서 인지된 내용이 기억 속의 경험과 연관됨으로서 나타나는 심리적 반응에 의한 것이다. 의자에 있어서도 상징적 특성은 사람들의 기억속에 있거나 욕구되어지는 내용에 대해 어떤 상황을 불러 일으키거나 인지하는 심리적 상태를 긍정적이거나 부정적인 반응으로 나타내게 한다.

고대 사회에서는 상징의 거의 대부분이 종교와 권위에 관계된 것이 많았다. 그래서인지 고대의 의자의 형상은 보는 사람으로 하여금 엄숙함과 위엄적인 심리로 유도한다. 의자는 언어적 기호(sign)처럼 전달의 의미를 가지고 있다. 소쉬르가 언어기호가 그 ‘개념’과 ‘창작 이미지’ 또는 ‘소기(signife)와 ‘능기(signifiant)’라는 두 측면간에 존재하는 관계라는 견지에서 특징 지워질 수 있다고 말한 것 처럼 의자 역시 기호라는 구조 체계안에서 의자라는 능기를 통해 인간의 내적 심리인 소기의 그 의미를 전달하고 있는 것이다. 그리고 피어스(peirce)는 기호를 도상(icon), 지표(index), 상징(symbol)의 세 가지로 구분하였으며 그중에서도 상징에 대해서 관습이나 문화적 약호화에 의해 의미를 부여받고 있는 것이라고 했다.⁶⁾ 무언가를 그 모양이나 방향을 통해 직접적으로 그 대상을 전달하는 도상이나 지표보다 상징은 관습이나 문화 그리고 인간의 내적 심리상태처럼 좀더 무형적인 어떤 의미를 전달하는 기호 체계이다. 이처럼 상징은 실재 양태나 세계의 심층 구조를 드러낸다. 그리고 상징의 본질적 기능이란 바로 물리적 경험으로는 접근할 수 없는 실세의 구조를 드러내는데 있다.⁷⁾ 권위와 종교적인 인간의 본질적인 내적 향수는 현대에서도 의자의 물리적인 형상을 통해 인간의 심적 구조를 구체적인 경험으로 보여준다. 예를 들어 사장과 부하직원의 의자를 통해 우리는 사회속에서 차별화된 권력 욕구의 심층 구조를 읽을 수 있다.

상징기능은 실질적 기능이나 심미적 기능보다 시대적, 사회적 그리고 인간 심리의 본질적 관계안에서 그 의미를 갖는다. 무형의 구조를 물질적 실체로 구체화 시키는 기능을 지니고 있다. 그렇다면 고대에서 지금까지의 의자를 통해 각 시대적 문화적 배경안에서 다르게 형상화되고 구체화되었지만 공통적이며 보편적인 인간의 내적인

3)남영신 역, 한 국어사전, 성안당, 1997, p.1190

4)박영순, 의미분별 척도법에 의한 디자인 평가도구의 개발, 연세대학교 박사논문, 1985, p.27

5)테렌스 호우스, 오원교 역, 구조주의와 기호학, 신아사, 1982, p.30

6)배석빈, 미술작품의 기호적 이해, 서울 대학교 대학원 석사논문, p.15

7)M. 엘리아데, 베누테 역, 상징, 신성, 예술, 서광사, 1991, p.33

본질적 특성을 역시 구분되고 분석 할 수 있다. 즉 동일한 인간의 내적 욕구가 다른 시대적, 문화적 배경에서 의자를 통해 다양하게 표출되는 것이다. 그러므로 어떻게 다르게 상징적으로 형상화 되었는가 보다 의자를 통해 인류의 역사가 시작된 이래 어떤 본질적인 인간의 내적 욕구가 존재하는가의 고찰이 중요하다.

3. 인간의 내적 욕구와 의자의 표현성

3.1 인간의 내적욕구

인간이 원하는 내적 욕구란 무엇인가? 오늘날 마케팅 분야에서는 소비자의 필요(need)와 욕구를 그들이 보여주는 행동들을 통해 분석, 평가 하고 있다. 소비자가 물건을 선택하는 가장 근본적인 것은 바로 욕구라고 할 수 있다.⁸⁾ 그들의 행동은 일종의 상징적인 행위이다. 눈으로 확인 할 수 없는 어떤 생각과 개념 그리고 무형의 실체들을 인간은 확인하고 전달하고 싶어한다. 이를 위한 방법으로 인간은 상징적인 표현으로 언어를 사용하였고 예술품들을 남기고 있는 것이다. 의자 역시 수천년전부터 인류에게 이러한 인간의 내적 욕구들을 표현하는 상징적인 표현 수단으로 사용되고 있다. 가장 가까이 그리고 오랜동안 광범위하게 사용된 기구이며 상징 수단이다.

호보 사파언스가 다른 생물들과 구별되는 것은 뱀처럼 기거나 호랑이처럼 뛰는 것이 아니라 직립으로 걷고 어딘가에 앉을 수 있다는 사실이다. 인간은 앉은 자세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으며 하려고 한다.⁹⁾ 그러므로 인간의 가장 근본적이고 인간이라면 가지고 있는 내적, 본질적 욕구들이 의자를 통해 상징적으로 형상화 될 것은 분명하다. 즉 물질적으로 보여지지 않는 인간의 근본적인 욕구들의 내적 심층 구조들을 우리는 의자를 통해 구체적으로 확인 할 수 있다. 인간이 가지고 있는 내적인 욕구는 다양하고 복잡한 구조를 가지고 있다. 그러므로 인종과 지역 그리고 시대를 초월한 인간의 가장 기본적인 정신적인 내적 욕구를 종에서도 정신적인 안락과 자유 그리고 동물의 적자생존의 약육강식적 원리가 유일하게 이성을 가진 인간이 사회속에서 자신을 남보다 더 강하게 보이기 위한 내적으로 감춰져 표현되는 권리에 대한 욕구와 프로이드가 말한 이드(id)¹⁰⁾적인 원초적이며 충동적인 욕구가 될 수도 있지만, 인간의 삶에서 실질적으로 중요한 부분을 차지 하는 에로티시즘적인 욕구를 중심으로 의자의 형태적 표현과의 상관관계를 살펴보았다.

3.2 의자의 형태와 인간욕구의 관계성

(1) 정신적 안락에 대한 욕구

8)이하시의 3인, 소비자 행동, 법문사, 1998, p.25

9)Hajo Eickhoff, Himmelsthron und Schakelstuhl, Carl Hanser Verlag, 1993, p.9

10)프로이드의 심리분석이론에 따르면 인간의 개성시스템은 id, ego, superego로 구성된다고 한다. id는 식욕, 성욕과 같은 원초적이고 충동적 욕구의 원천으로써 개념화 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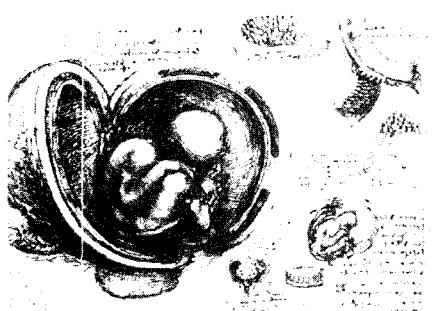


<그림 2> 라마의 수도원장

인간은 안락하게 살기를 원한다. 그러므로 의자 디자이너들은 안락한 의자를 만들기 위해 좀더 인간공학적인 데이터를 이용한 정확한 형태를 위해 많은 노력을 한다. 그러나 안락감은 단순히 수치로써 설명되지 않는 복잡한 의미를 가진다. 안락감은 사회적인 관습이나 인간의 본성적인 회귀 본능에 의해 결정된다는 사실 때문에 인간공학자들은

흔한스러워한다. 요가를 하기 위해 앉아있는 수행자들은 균형을 최대로 이완시키며 기계적 보조수단이나 지지대 없이 내적인 신체 균형과 호흡조절을 통해 실현한다.¹¹⁾ 우리는 이밖에 다양한 문화권에서 그들만이 편안하다고 느끼는 이색적인 자세들을 볼 수 있다<그림 2>. 오랜 관습이나 문화에서 얻어지는 정신적인 편안함이 안락감을 충족시킬 수 있는 중요한 이유가 되는 것이다. 즉 안락한 의자를 위해서 육체와 내적인 정신적 균형과 편안함을 동시에 고려해야 한다. 동양권에서 다리없이 등만 기댈 수 있는 의자도 좋은 사례이다. 안락감을 느끼게 하기 위해 디자이너들에게 문화와 관습의 고려는 중요한 전제 조건이다.

회귀는 본래의 자리로 돌아오는 것을 뜻한다. 인간이 인생에서 다시 돌아가서 본디의 자리로 가려는 곳은 탄생이전의 기억으로부터이다. 우리가 태어나서 하는 첫번째 행위는 서는 것이다. 우리 모두는 앉아서 웅크린 자세에서 우리 존재가 알려져서 아기가 자궁에서 발을 펴는 순간 태어나기 위해 뻗치는 경험이 시작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인간이 선다는 것은 다소 의식적으로, 의미있게 이 첫 번째 경험을 하는 것이고, 그리고 앉을 때마다 다시 그 안으로 기는 것을 반복하는 것이기도 하다.¹²⁾ 바흐오펜(J.J. Bachofen)은 상징적 표현은 무덤에서 시작한다고 했다. 상징적 표현은 출산, 결혼, 죽음이라는 인간의 세가지 기본적인 경험들을 외부세계에 대해 구체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앉는 자세 또한 자궁에서의 어린아기의 자세를 연상 할 수 있는 것이다<그림 3>.



<그림 3>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스케치

11)Werkbund Archiv8, z.B. Stuehle, anabas Verlag, 1987, p.3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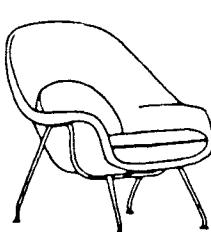
12)ibid. p.3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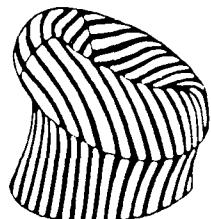
<그림 4> 지구의자, 1966

역사 이전이나 고대에는 대부분 인간의 주검이 같은 자세로 매장되었다고 한다. 그렇기 때문에 이 자세는 모든 생물이 탄생되기 전의 어머니의 육체안으로 되돌아 가는¹³⁾ 것이다. 이것은 탄생이전으로 회귀하려는 내적 본성을 잘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에로아르니오(Eero Aarnio)의 의자<그림 4>인 지구

의자는 어머니의 자궁을 단면으로 자른 듯한 형태와 함께 태어나기 전 어린이의 모습으로 앉는 자세를 유도하며 보는 사람들로 하여금 무의식적인 회귀 본능을 불러 일으킨다. 에로 사아리넨은 1948년 '자궁의자(womb chair)'<그림 5>라는 이름의 의자를 만들었다. 이밖에 형태는 다르지만 사용자에게 탄생이전의 회귀적 본능과 욕구를 자극하고 충족시킬 수 있는 의자들을 발견 할 수 있다.<그림 6> 그림 10의 해도이(Hardoy) 의자와 그림 12의 사코(Sacco)²⁸⁾의 경우는 다음에 살펴 볼 자유에 대한 욕구와도 연관된다. 다시 말해 인간 이전의 자신의 모습을 그리워 하는 것인지도 모르며 그 속에서 비로소 자유함과 동시에 내적 안락을 느끼게 된다. 물론 앞서도 밝힌 바 있듯이 의자는 그 어느 물건들 보다 시대적, 문화적 그리고 사회적 상황(context)안에서 외형적으로 많은 변화를 겪어 왔다. 기술적인 발달 정도에 따라 다른 생산 방식과 재료가 사용되어 전혀 다른 모습으로 우리 앞에 그 실체를 들어내지만, 아마 고대에도 그리고 역사 이전에도 지금의 지구 의자(globe chair)나 업 시리즈(up series)와 같은 의자가 유도하는 인간의 회귀본능을 충족시킬 수 있는 의자가 있었을 것이다. 우리가 의자에 앉지 않더라도 바닥위에서 다리를 자궁 속의 아기처럼 앉아서 안락감을 느낄 수 있는 것은 인간의 회귀적 내적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 안락 즉 편안하고 즐거움을 느끼게 하는 의자는 인간의 육체 뿐 아니라, 문화적 배경에서 생겨나는 정신적인 균형과 인간이 탄생하기 위해 몸을 뻗으려고 서는 자세 이전의 회귀적 본능을 의자의 상징적 표현을 통해 인간의 정신적 안락의 욕구를 충족시킨다.



<그림 5> 자궁의자, 194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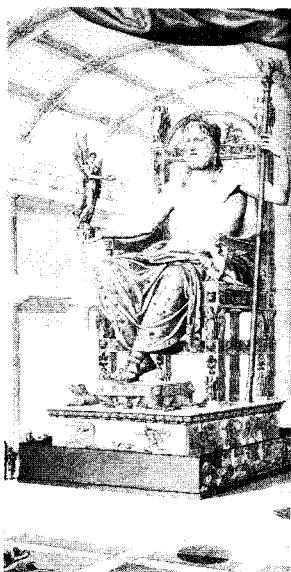


<그림 6> Up-Chair, 1968

13)ibid. p.39

(2) 권위 대한 욕구

권위란 권력과 위세가 합쳐진 단어로써 사람을 강하게 정신적 또는 육체적으로 복종시키는 힘을 의미한다. 이러한 권위를 상징화 시키는 표현 수단이며 도구로 의자는 오랜 역사를 가지고 있다. 인간의 정신적, 육체적 그리고 부에 대한 힘의 과시 욕구는 역사 이전인 작은 사회가 형성되면서부터 의자를 통해 실제로 형상화 되었다. 이러한 사례는 가구의 역사책에서 볼 수 있는 의자에서 첫눈에 인간의 권위에 대한 내적 욕구가 얼마나 강한 것인가를 인식 할 수 있다. 흔히 권위를 상징하는 의자로는 이집트나 고대 국가의 옥좌나 중세시대의 교황의 성좌등을 연상한다<그림 7>. 그렇지만 현대에도 이러한 화려한 형태는 아니지만 구별된 권위와 계급을 나타내는 의자가 존재한다. 다른 의자들과 차별화된 형태를 통해 다른 사람들에게 자신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의미의 힘을 과시하기를 원하는 마음이 바로 권위에 대한 의자의 상징적 표현이다.



<그림 7> 지위(status)를 극단적으로 상징화시킨 의자와 권력자의 모습

여신'이라는 이름을 가진 이 좌상에서 보여주는 풍만한 여인의 모습과 의자 형태에서 그 시대의 권위의 가치가 다산을 할 수 있는 능력에 있었음을 알 수 있다. 아울러 모권사회 옛음을 엿보게 하는 상징적 의미를 갖는다. 시대적, 문화적 배경에 따라 권위에 대한 가치 기준과 의미는 다르지만 인간의 권위에 대한 무형의 욕구 구조를 표현하기 위해 의자를 통해 상징화 시키고 있음은 지금의 우리도 다를 바가 없다. 현대에도 등판이 목까지 올라오고 자유로이 높이 조절과 회전이 가능한 의자에서 높은 지위를 가진 사람이 앉아 있는 모습이 함께 연상되고 동시에 권력과 힘을 느낀다<그림 9>. 현대는 다양한 의자의 가능성을 통해 권위를 강조하기도 하는 것이다. 또한 '임신한 여자의 좌상'의 형태에서 역사시대의 왕좌의 형태에서 보여지는 수호의 의미¹⁴⁾를 가진듯한 짐승의 모습도 보인다. 이러한 모습에서 역



<그림 8> 다산의 능력을 가진 여신좌상

사 시대의 옥좌와 지배계급의 화려한 의자의 원형을 읽을수 있다. 화려함과 엄숙함, 다양한 기능 그리고 위압적인 크기등을 통해 권력의 가치 기준과 형태는 다르지만, 의자가 상징하려는 것은 인간의 권력과 힘을 과시 하려는 욕구이다.

권위를 나타내는 물건에는 화려한 옷을 비롯하여 의자외에도 많은 것들이 있지만, 의자는 좀 더 다른 상징적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 이를 이해하기 위해 '앉는다'



<그림 9> 지위에 대한 표현으로 인식되는 사무용 의자들

는 행위의 인류 역사학적 의미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선행되어야 한다. 영어에서 집합명사인 'Bench of magistrates'가 관료를 나타내는 것만 보아도 의자가 상징하는 의미가 권력과 힘이 였음을 알 수 있다. 흥미로운 사례로써 영국 왕의 즉위식 의자는 아랫면의 칸막이와 모서리에 네 개의 사자를 가진 중세시대에 만들어진 위대한 형상물이다. 그 안에는 'The stone of Scone'이라고 알려진 스코틀랜드에서 에드워드 1세가 운반 해 온 돌이 놓여있다. 한 조각의 돌위에서 스코틀랜드의 왕들이 왕의 자리에 즉위했던 것이다. 이 돌 과의 접촉을 통해 불가사이한 힘을 얻게 된다는 의미보다 인도 유럽 민족학의 일반적인 관습에서 그 의미를 찾아야하며 그 원천은 아시아 일부 지역이나 서부 아프리카 민족들에서 최고 권력자의 힘과 왕위가 계승되는 걸터앉는 의자와의 관련에서 비롯된다.¹⁵⁾ 즉 앉는다는 행위는 권위와 함께 대지를 연상하게 하는 것이며, 지배자에게 자신의 영토를 모두 지배 할 수 있으며 그 위에서 어느 누구보다 높은 지위와 많은 권력을 누릴 수 있음을 뜻한다. 대부분의 문화권에서 권위있는 의자의 모습이 그 높이를 자랑하며 의자 아래를 내려다 보면 지배적 권력을 한층 더 상징화 시키는데 반해서 일본 교토의 황제는 바닥과의 직접적인 접촉을 주기위해 나무바닥안의 커다란 석고 불려위에서 조상들을 위해 예식의 성수를 부어 황제의 권위를 강하게 한다. 이 불력은 높이를 통한 상징화 보다 일본의 또다른 대지를 의미하는 의자의 역할을 한다. 중세시대 교황의 의자 또한 장엄하고 화려하다.

14)토렌 사상에서 유래되어 공감주술의 형태로써 그림이나 조각되어진 형태 '그대로 이루어 질것이다'라는 이중의 실현성을 기원하는 의식적 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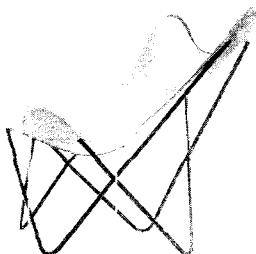
15)Werkbund Archiv8, z.B. Stuehle, anabas Verlag, 1987, p.39

이는 대지의 지배를 의미하기 보다 종교적인 의미에서의 정신적 지배를 상징화 한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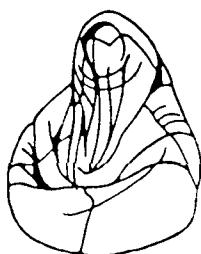
이처럼 인간의 권위에 대한 과시와 정보 전달의 기능이 다양한 양태로 의자의 상징성을 통해 표현되어지고 있다. ‘나는 사장이다’, ‘나는 왕이다’, ‘나는 정신적인 지배자이다’ 또는 ‘다산의 능력을 가진다’라는 문화적 시대적 배경에서의 가치 기준은 다르지만, 자신의 능력과 권위에 대한 언어적 표현 대신 의자는 그 의미를 구체적인 형상으로 전달하고 있는 것이다. 인간의 권위에 대한 내적 과시욕이 얼마나 의자의 상징화에 많은 영향을 미치는지 현재와 과거의 의자를 통해 고찰 할 수 있다.

(3) 자유에 대한 욕구

자유는 남에게 구속받거나 무엇에 얹매이지 않고 제 마음대로 행동하는 것을 말한다. 자유에 대한 갈망은 인간이 가지고 있는 가장 기본적인 욕구¹⁶⁾기도 하다. 잠시 몸을 억압 받거나 생각의 자유로부터 방해 받는다고 생각하면 인간은 불행감을 느끼게 된다. 그러므로 인간의 자유에 대한 갈망이 의자의 형태를 통해 어떻게 상징적으로 형상화 되었는지 고찰하는 것은 흥미있는 일이다. 자유란 육체적 정신적으로 가장 자연스럽게 행동 할 수 있음을 뜻하기 때문에 신체의 자유스런 움직임과 동시에 정신적인 자유를 누릴수 있게 하는 의자를 만드는 것은 중요하다. 이를 위해 의자는 기계적, 논리적인 분석에 의해 만들어지는 것도 중요하지만 육체와 정신을 자유스럽게 바꿀수 있는 그 어떤 상징성을 가져야 한다. 자유를 구가하기 위해 선 의자위에서 인간은 어느 무엇에도 육체와 정신이 강요되지 말아야 한다. 오직 자신의 의지대로 신체를 변화시키면서 정신적인 해방감을 맛볼 수 있어야 하는 것이다. 어쩌면 의자의 권위적 상징에 대한 반발일 수도 있다.



<그림 10> 놀(<noll>)사에서 제작한
헤도이 의자, 1988



<그림 11> 사코의자, 1968

자유에 대한 상징적 표현으로의 의자의 형태는 유연성(flexibility)을 시각화 시키는 경우가 많다. 1차대전 후 20세기 이탈리아 군대가 야전 의자로 사용했던 오래된 나무 가죽으로 접는 의자의 후예인 헤도이(Hardoy)의자는<그림 10> 자유에 대한 인간의 욕구를 적절하게 상징화 시킨 사례이다. 단단한 쇠파이프와 한 장의 박음질 된 아파가 재료의 전부인 이 의자는 인간공학을 신뢰하는 사람에게는 이해 할 수 없는 의자일 수도 있다. 왜냐하면 조금 오래 앉아있으면 넓적다리 이랫부분을 누름과 동시에 용기된 지지대로 인해 자세를

바꿀 때마다 굉장히 노력을 필요로 하기 때문이다.¹⁶⁾ 그러나 이 의자의 인기는 대단했다. 이 의자를 결정한 고객이 합리적인 이유에서 선택 했다기 보다 유연성을 상징화 시킨 즉 그 의자 위에서 자유에 대한 욕구를 만족 할 수 있으리라는 기대 때문이다. 옛부터 많은 사람들이 정치적으로든 종교적으로든 강요되는 권위에 대해 반감을 가진 사람이 많았다. 그런 사람들을 위해 해도이 의자는 최소한의 구조로 축소시켜 상징화 된 것이다. 바로 인간의 자유에 대한 상징적 표현이다.

의자에 앉아 자유스런 포즈로 휴식하고 있는 사람의 사진 또는 우리 자신을 발견 할 때 의자가 인간의 자유에 대한 욕구를 충족 시켜야 한다는 것을 인식 할 필요가 있다. 요추를 등판에 붙이고 다리를 좌판아래로 똑바로 내리고 앉아있는 정상적인 앉은 자세가 아닌 팔 받이나 등판위로 다리가 올라간다면 이런 자세와 생각을 항상 수용 할 수 있는 의자를 원하고 있는 것이다. 자유스럽게 자세를 취할 수 있는 의자위에서 비로소 정신적인 자유도 얻게 된다. 1968년에 선보인 사코(Sacco) 28<그림 11>은 의자 자체가 인간의 자유 의지를 스스로의 변신을 통해 수용 할 것 같은 유연성을 상징화 시키고 있다. 그 자체가 얼마만큼 유연하게 변하여 줄지는 정확하지 않지만 시각적인 유연성과 자유에 대한 상징은 완벽해 보인다. 이집트 시대부터 만들어진 접는 의자와 같이 운반성을 강조한 의자 역시 다기능을 통한 실용적인 측면으로도 평가 될 수 있지만 장소의 자유로움을 구가 하기 위한 내적 자유 욕구에서 비롯 된 상징적 기능이기도 하다. 그리고 긴 쇠파에서의 육체적 정신적 자유스러움을 어찌 잊을 수 있겠는가? 앞서 살펴본 상징성의 의미처럼 의자의 기능과 형태를 통해 인간의 자유에 대한 갈망이 실제로 가능한 구조, 구체적인 조형언어로 표현되어 우리가 느낄 수 있는 감각 언어로 이미지화 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4) 에로티시즘에 대한 욕구

‘사랑’은 타인 또는 특정 대상에 대해 품는 애듯한 마음으로 인간의 기본적인 감정의 하나이다. 특히 사랑은 문학, 도덕, 철학, 종교 등 인류의 지성사를 통틀어 가장 근본적인 관념으로 취급되어 왔다.¹⁷⁾ 그리스어로 사랑은 신과 인간사이의 교제속에서 탄생한 아카페(agape)적인 사랑, 독립된 이성간에 성립되는 우애를 뜻하는 필리아(philia)의 사랑 그리고 정애에 뿌리를 둔 정열적인 에로스(eros)사랑으로 그 의미가 구분된다. 그중에서 에로스적인 사랑과 욕구는 인류의 역사를 비극적으로 그리고 아름답게 만들어 왔다. 이러한 에로스적인 사랑에 대한 갈망이 인간의 내적 욕구의 충족을 위해 중요한 의미를 갖는 만큼 의자의 표현에서도 여러 형태를 통해 상징적으로 표현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에로티시즘과 의자의 상징적 표현의 고찰을 위해선 우선 의자에 앉은 여성의 포즈가 남성과 다르다는 것에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 남성이 마음껏 다리를 벌리고 남성스러움을 뽐내며 앉는 데 반해 여

16)ibid p.38

17)중앙 백과 사전, 중앙 일보사, 1995, p.88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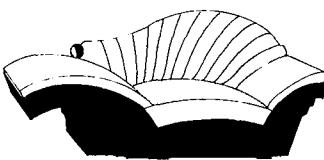
<그림 12> 대조적인 남녀의 앉은 자세

성은 다리를 옆으로 오부리고 다솟곳이 앉거나 한쪽 다리를 다른쪽 무릎에 꼬고 앉아 여성스러움을 강조하곤 한다<그림 12>. 어쩌면 권위를 나타낸 것 같은 규모가 크고 웅장한 의자도 남성다움을 강조하려는 성적인 욕구가 포함된 상징적 표현이겠다. 또 여성의 귀여움과 아름다움을 강조하기 위해 의자는

성적 호소를 전달하는 수단으로 이용되기도 한다. 틀에 박힌 여성들의 앉는 모습에서 전통적인 인간 사회의 남녀에 대한 관습적 인식을 이해 할 수 있다. 한 예로 여성의 다리는 남자의 눈길을 끄는 에로틱 포인트¹⁸⁾이다. 여성의 앉았을 때의 포즈와 남성의 눈길과의 상관 관계를 표현한다. 프로이드(S.Freud) 자신도 인격발달 과정에서 성의 중요성을 인식했을 때 그의 남성적 시선이 여성의 성적 부분에 머물렀다¹⁹⁾고 고백했다. 남성의 시선과 의자에 앉아있는 여성의 포즈와의 성적 의미의 상관관계 속에서 모든 의자는 에로티시즘의 도구로 이용 될 수 있다.

그러나 성적인 표현이 터부시되는 사회적 성향 때문에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의자를 통해 직접적으로 표현되기 보다 예술적인 관점에서 의자라는 대상을 통해 상징적으로 표현되고 있는 경우가 많다. 초현실주의자인 쿠르트 셀리그만(Kurt Seligmann)의 의자<그림 13>에서 여성의 다리의 형상을 통해 인간의 에로티시즘에 대한 욕구를 노골적으로 상징화 시키고 있다. 그리고 살바도르 달리(Salvadore Dali)의 입술 소파는 앓고, 놔고, 올라 탈 수 있는 에로티한 차원을 유회적으로 표현했다.<그림 1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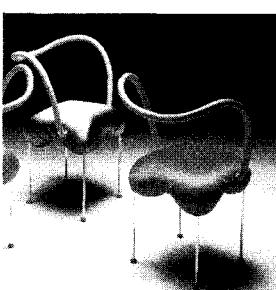
한스 홀라인(Hans Hollein)은 마리린 소파(Marilyn Sofa)라는 이름으로 1950년대를 에로티시즘의 상징처럼 불리워졌던 미국 여배우



<그림 15> 마릴린 소파, 1981

의 이름과 연관시켜 의자에 대한 성적표현을 강조하고 있다.<그림 15> 의자와 인간의 에로티시즘에 대해서 예술가들이 표현한 상징성 뿐만 아니라 지나치게 키치(kitsch) 적인 의자

<그림 16> 또한 에로티시즘을 위한 상징적 표현으로 볼 수 있다. 키치를 통해 대부분 여성스러움을 강조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그리고 과거의 로코코 양식의 자극적 화려하고 여성스러움이 강조된 의자에서도 그 당시 여성의 의상과의 조화에서 오는 에로틱 한 분위기를 느낄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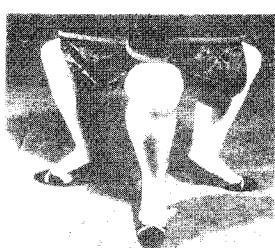
<그림 16> 원색적이고 부드러운 곡선을 극단적으로 강조한 의자

인간의 본질 중 하나라고 할 수 있는 성의 이미지는 오늘날 많은 제품에 있어 소비의 방향을 결정짓는 중요한 요소이다.²⁰⁾ 그러므로 성적인 잠재된 욕구를 충족시키는 것은 판매와도 깊은 연관을 가지고 있다. 과거나 현재 역시 성은 사회내에서 가려져 왔기 때문에 의자와에도 직접적으로 묘사된 물건을 키치로 분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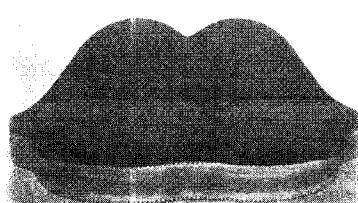
되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에로스적 사랑은 인간의 가장 기본적인 감정이다. 드러내어 질 수 없거나 개개인의 심리적 영역에서 항상 잠재되어 있는 가장 기본적인 내적 욕구의 하나인 에로티시즘 역시 의자가 생겨난 이래 직접 또는 간접적인 상징적 표현으로 노출되어 진다.

4. 의자의 형태에 나타난 상징적 표현들

인간의 네 가지 기본적인 내적 욕구가 구체적인 형상으로 의자를 통해 표현되고 있음을 과거로부터 현재 존재하는 의자의 사례에서 확인 할 수 있다. 자궁을 연상하게 하는 의자의 형태는 물리적인 안락이외에 인간의 탄생이전 상태로의 회귀적인 본능을 충족시키며, 문화적 배경에서 이해 될 수 있는 정신적인 안락감은 문화권마다의 특색있는 의자의 구체적인 구조와 형상으로 표현되고 있다. 또한 의자의 오랜 상징적 기능인 권위에 대한 과시적 형상화는 각 시대와 문화권의 권리에 대한 가치적 해석 그리고 기술적 변화에 따라 추가되는 기능과 다양한 조형적 변화로 상징화 된다. 자유를 추구하는 욕구는 신체와 정신이 동시에 자유로움을 충족할 수 있게 하는 의자의 형태와 구조적 특성을 보여주고 있다. 그리고 에로티시즘에 대한 인간의 욕구는 사회적 관습의 틀안에서 한계를 가지는 의자의 형태나 인간의 신체적 묘사로 형상화 되고, 의자는 이성의 시선을 의



<그림 13> 여자 다리 형태의 의자(ultra-meuble), 1938



<그림 14> Mae West²¹⁾의 입술소파 1936

18)Werkbund Archiv, z.B. Stuchle, anabas Verlag, 1987, p.152

19)S.Freud, Die Weiblichkeit Vorlesungen, 1928 1933, Gesamte Werke, Bd. 15, 1973, p.119

20)오창섭, 디자인과 키치, 토마토, 1997, p.228

식한 앉아있는 자신의 모습을 상징적으로 표현하는 하나의 에로티시즘적 욕구를 충족시키는 실질적인 도구로 이용된다. 의자의 형태로부터 고찰되는 인간의 가장 보편적인 내적 욕구에 대한 상징적 해석들은 인간의 본질로의 접근을 위한 가장 기본임을 이해 할 수 있다.

본 논문을 통해 살펴본 인간의 기본적인 네가지 내적 욕구를 통해 가장 두드러진 의자의 상징적 표현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표 1> 인간의 본질적인 내적욕구와 대표적인 의자의 상징적 표현들

내적욕구	의자의 상징적 표현
1)안락에 대한 욕구	문화적 차이에 따른 편안한 앉음을 위한 상이한 구조와 형태 자궁 모양이나 오목한 형태, 유연한 재료
2)권위에 대한 욕구	웅장한 크기, 동물의 장식 화려함, 고급스러움, 다 기능성
3)자유에 대한 욕구	유연성, 경량성, 휴대성
4)에로티시즘에 대한 욕구	성적 신체 묘사, 카치, 남성적, 여성적

5. 결론

의자는 다양한 기능을 가진 기구이므로 하나의 의자가 인간의 특정한 내적 욕구만을 위해 존재하거나 조형적으로 상징화 된것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렵지만, 인간의 곁으로 드러나지 않는 내적이고 본질적인 욕구가 의자가 만들어진 이래 그 시대 상황과 문화적 배경안에서 끊임없이 다른 기능과 함께 상징적으로 그 모습을 들어내고 있음을 고찰 할 수 있었다. 가장 다양한 인간의 기구이며 가구인 의자에서 공통된 인간의 내적, 본질적 욕구를 분류하는 것이 형이상학적이고 추상적으로 인식될 수 있지만, 우리 인간 자신이 본질적인 욕구들을 스스로가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에 평소에 스쳐 지나치던 주변의 의자에서도 그 상징적 연관성을 구체적으로 확인 할 수 있다. 본 논문을 통해 살펴본 인간의 기본적인 네가지 내적 욕구를 통해 가장 두드러진 의자의 상징적 표현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우리는 의자의 디자인을 위해 그저 단순히 실용성과 심미적인 충족에만 초점을 맞춘다. 그리고 디자이너는 그러한 사용자의 외형적인 니즈와 욕구 그리고 경제성 등만을 고려하여 디자인을 하는 우를 범하거나, 인간의 본질에 대해서는 너무나 당연하기 때문에 무시하기도 한다. 그러나 고도의 기술이 발달된 정보화 사회에서도 인간의 본질적인 내적 욕구의 충족은 감성의 중요성과 더불어 더욱 중점을 두어야하는 인간 요소로 고려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선 의자와 인간 사이에 오고가는 본질적 커뮤니케이션의 관찰과 이해가 철저하게 과학되어야한다. 그리고 하나의 대상물과 인간이 진정으로 원하는 욕구의 상호작용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와 관찰은 문화적인 배경에서 인식 할 필요가 있다. 특히 상징성은 이러한 배경의 틀안에서의 이해가 결여되면 그 기능을 상실하게 된다. 인간이 살아가는 환경과 그리고 그 본질에 대한 이해야말로 디자인을 하기 위한 가장 기초적 지식인 것이다. 미래의 사회는 보다 더 인간 본위의 디자인이 추구

되어 질 것이며, 고도의 기술 사회일수록 인간의 정신적인 욕구에 대한 만족이 디자인의 중요한 관건이 될 것임은 자명한 일이다. 실용적인 기능이외에 인간과 물건 하나 하나와의 내적인 교감과 모든 감각을 통한 커뮤니케이션의 기능은 더욱 확대 될 것이다. 그러므로 디자이너는 곁으로 드러나지 않는 인간의 내적 욕구를 보다 상징적으로 구체화하여 우리의 삶을 풍요롭게 만들 의무를 가진다.

본 논문에서 고찰된 문화, 시대 그리고 지역을 초월하여 가지고 있는 인간의 보편적이면서 본질적인 네가지 내적 욕구들이 의자의 상징성의 표현에 결정적인 역할을 하였음을 고찰 할 수 있었다. 또한 위에서 살펴 본 네가지 본질적 욕구이외에 앞으로 변화되는 사회와 문화 속에서 인간의 내적 욕구들은 좀더 세분화되고 다양해 질 것이다. 사용자는 이러한 내적 욕구들을 구체적인 대상물을 통해 충족시키려 한다. 그러므로 디자이너들은 실용적, 심미적인 기능의 충족 뿐만 아니라, 문화적이고 역사적 문맥안에서 인간이 진정으로 원하는 내적 욕구를 인간의 삶속에서 계속 발견하고 관찰하여 시대정신에 맞는 새롭고 독창적인 조형적 표현으로 상징화 시켜야 함을 인식 할 필요가 있다.

참고 문헌

- Angelika Jahr, SchoenerWohnen, 10. Auflage Verlag Gruner+Jahr AG & Co, Hamburg, 1989
- Berhard E. Bueda, Design, DuMont Buchverlag, Koeln, 1991
- Edward Lucie Smith, Furniture, updated edition, London, 1993
- Hajo Eickhoff, Himmelsthron und Schaukelstuhl, Carl Hanser Verlag, Muenchen Wien, 1993
- Jeanne Siegel, How to speak with an Antique American, bonus books, illinois, 1991
- Renata Sias, The encounter in the domestic office, Domus Academy, Milano, 1988
- S.Freud, Die Weiblichkeit, Vorlesungen, 1928-1933, Gesammelte Werke Bd. 15, Frankfurt am Main, 1973
- Volker Fischer Ed, Design Now Industry or Art, Prestel verlag, 1989
- Werkbund Archiv 8, z.B. Stuehle, anabas verlag, Giessen, 1987
- 남영선 엮음, 한 국어사전, 성안당, 1997
- 민찬홍, 박영순, 오혜경, 천진희 풍자, 실내디자인 용어사전, 도서 출판 디자인 하우스, 1995
- 아니엘라 야페, 이희숙 역, 미술과 상징, 열화당, 1995
- 오창섭, 디자인과 키치, 토마토, 1997
- 이학식, 안광호, 하영원 풍자, 소비자 행동, 제 2판, 법문사, 1998
- 베른하르트 회바흐, 신수길 역, Industrial Design,
- 엠 엘리아네, 박규태 역, 상징, 신성, 예술, 제1판, 법문사, 1993
- 테렌스 호우스, 오원교 역, 구조주의와 기호학, 제4판, 신아사, 1982
- 박영순, 의미분별 척도법에 의한 디자인 평가도구의 개발, 연세대학교 대학원 박사논문, 1985
- 배석빈, 미술작품의 기호적 이해, 서울 대학교 대학원 석사논문, 1987
- 한창희, 의자 디자인의 양식 변형에 관한 고찰, 서울 대학교 대학원 석사논문, 1987
- KAGU, vol.2 Designer's Week in Makuhari Rikuyo sha, 1990

<접수 : 1998. 10. 28>